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광림외국인제자훈련센터
외국인설잔치
일시 2월 3일(주일) 오전 11시~오후 4시
장소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B홀



“다니엘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 거룩한 습관을 배웠어요!”

〈2019 교회학교 겨울수련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들 영적으로 크게 성장

“이번 겨울수련회는 정말 색다르고 즐거웠어요. 저희 눈높이에 맞는 설교 말씀이라 더 은혜 받고 집중할 수 있었어요.”

영혼이 갈급한 아이들에게 큰 은혜 주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겨울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오는 귀한 체험이 있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회학교에 자녀를 둔 한 어머니의 고백이다. 광림 교회학교는 2019년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열고 아동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하나님의 천국잔치로 초청했다. 1월 11일(금)~13일(주일) 중고등부(교육2부) 학생들은 ‘다정한 수련회’라는 주제로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구약의 다니엘서 말씀을 배우며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사자 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과 신앙을 굽히지 않았듯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결단했다. 또한 새벽기도와 조별 성경공부, 운동회, 부흥 집회 등으로 신앙을 훈련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했다. 140명의 중고등부 학생들과 50명의 교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신현희 목사(안산 나눔교회 담임)는 두 번의 저녁집회를 인도하며 갈급한 청소년들의 영혼을 어루만졌고, 전용제 목사(의정부 하늘샘교회 담임)는 ‘Talk to You’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진로 문제와 신앙상담을 하며 진솔한 치유의 시간을 이어갔다. 미니올림픽 운동회에서 학생들은 웃고 뛰고 달리면서 체력을 단련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화합하며 친교를 다졌다. 교사들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다. 직장에 휴가를 내며 학생들과 하나가 되어 호흡하고, 부서별로 임무를 분담해 효율적인 진행을 도왔다. 프로그램 준비는 물론 밤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며 야간생활지도도 하고, 간식 준비팀은 따뜻한 코코아를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배치하고, 푸드트럭도 준비해 떡볶이, 어묵 등을 먹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조채영 학생(고등1부)은 “이번 겨울수련회는 정말 색다르고 즐거웠어요. 저희 눈높이에 맞는 설교 말씀이라 더 은혜 받고 집중할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박영준 권사(중등2부 부장교사)는 “자녀들을 교회학교 겨울수련회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교회학교 아동들(교육1부)을 위한 겨울성경학교는 ‘하나님 편에 서요’라는 주제로 유년부는 1월 25일(금)~26일(토), 초등부는 1월 26일(토)~27일(주일), 소년부는 1월 25일(금)~27일(주일) 동안 펼쳐졌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주제로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의 결단, 거룩한 습관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유년부(1~2학년)와 초등부(3~4학년)는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열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배를 드렸고, 찬양과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면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니올림픽, 코스게임, 동대문 어린이 놀이터 방문 등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어린이들의 호응이 높아졌다. 소년부(5~6학년)는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다니엘 성경골든벨, 성경구절 찾기, 눈썰매, 파자마 파티 등 유익한 시간을 보내며 2박 3일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강명남 목사(교육1부), 황영재 목사(9선교구), 정용식 목사(7선교구)가 성경학교 강사로 나서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의 영혼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었다.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인간의 족보 속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6-17)

현대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세상입니다. 딱히 드러날 방법이 없으니 이력서를 장황하게 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쓸 당시에는 이력서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게 없었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족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정말로 참담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증거로 여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가 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 예수님의 족보

“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

에 특이하게도 5명의 여자들 이름이 옵니다. 그런데 모두 철저히 이방인입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들과 관련된 내용은 부도덕하고 추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족보에 이들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있으니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본문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기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을 소개할 때 마태는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칼끝을 피해 도망칩니다. 그때 같이 도망친 다윗의 용사들 중에 '우리야'도 있었습니다. 다윗에



마태복음 1:16-17

16.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게 우리야는 생명의 은인이요,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왕위에 오른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에게 탐욕을 가졌고, 그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죄를 감추기 위해 다윗은 우리야를 최전선에 보내 죽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결혼합니다.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밧세바 사이의 첫 번째 아들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참담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예수님 족보에 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 중 몇몇은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메시야가 오시기까지 많은 세대가 왔다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이하를 보면 아이로가 예수님께 나아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들어주기 위해 가시다가,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병 낫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

사이 하인이 와서 아이로에게 딸이 죽었다고 알립니다. 그때 절망하는 아이로를 향해 예수님은 “만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론 더디게 이뤄집니다. 때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실현시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며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17절) 이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세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도 14세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입니다. 모두 7세대가 두 번씩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7이라는 숫자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상징하는 숫자가 7입니다. 또 레위기 25장을 보면, 일곱 번째 일곱 해 중 마지막 해인 49번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노예가 해방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는 열네 대를 세 번 이야기합니다. 7번째 6번을 말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안식의 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삶에 참된 안식과 자유가 있음을 믿고, 이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정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목회연구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02-2056-5730

믿음의 본이 되는 장로로 하나님께 헌신 다짐

<2019 장로세미나> 1월22~23일 강릉에서 진행, 성찬식과 안수식으로 마무리



회심을 통해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장로
<2019년 장로세미나>가 1월 22일~23일까지 강릉에서 1박 2일간 개최되었다. 시무장로 53명이 부부동반으로 108명이 참석한 이번 장로세미나는, 첫날 개회예배, 김정석 담임목사의 특강, 장로월례회로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경건의 시간, 두번째 김정석 담임목사의 특강과 성찬식, 김선도 감독님의 안수식, 단체 기념촬영으로 은혜롭게 마쳤다. 첫날, 개회예배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장로의 열심이 갖는 위기 문제를 지적하고 믿

음생활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녁 특강에서는 ‘참된 생명을 얻는 삶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예배와 기도, 헌신과 봉사의 모범이 되며 최선을 다하는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날, 새벽 경건의 시간에 정준수 기획목사는 로마서 16장으로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비뚤을 비롯한 37명의 동역자와 같이 주님의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두번째 특강에서 담임목사는 ‘복음주의 7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회심을 통해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 영적인 리더십으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이루어가는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찬식과 감독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으며 모두 맑은 자리에서 장로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 문송철장로(방송문화선교위원장)

포토 뉴스



청장년부 SEE:D TALK

1월13일 주일 낮 광림사회봉사관에서 청장년부 SEE:D TALK이 제인량 목사가 ‘말씀이 삶이 되는 통독’을 주제로 강연했다.



청년부 임원 임명식

1월13일 주일 5부 젊은이예배에서 청년부 임원 임명식이 있었다.



수묵화 캘리그래피 전시회

1월 13일~20일까지 장천갤러리에서 수묵화 캘리그래피 전시가 열렸다.

담임목사 동정



- 1/13 청지기주일
- 1/13 강남지방 교역자회의
- 1/16~18 임원전지훈련 2차
- 1/20 사단법인광림 총회
- 1/20 교사임명예배
- 1/22~23 2019 장로세미나

감독 동정



- 1/13 광림남교회 주일예배
- 1/20 광림서교회 주일예배
- 1/22~23 2019 장로세미나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제7회 사단법인 광림 총회 및 사랑부 교사임명예배



“10여 년 전 많이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사랑부 교사로 자원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사랑

부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제가 무엇을 해주기보다는 그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분들이 사랑부에 오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체험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한 교사는 말했다.

지난 1월 20일(주일) 낮 12시 30분 <제7회 사단법인 광림 총회 및 사랑부 교사임명예배>가 예수와홀에서 있었다. 사단법인 광림과 사랑부 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장기근속 및 모범, 개근 교사들에게 표창장을 시상했다.

사단법인 광림은 평일에 운영되는 광림주간보호센터와 예수와주간보호센터, 토요일에 특성화교육을 하는 이레센터로 구성되어 있

다. 장애인사역과 교육,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장애인 생애주기 전반에 이르는 치료, 교육, 훈련,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소외된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사단법인 광림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광림 사랑부가 세상에서 빛 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부 신입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발달장애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 이정순 기자 lillypink60@hanmail.net

<임원전지훈련> 2차,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 강조



광림교회 권사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제2차 임원전지훈련>이 1월 16일(수)~18일(금)까지 3일간에 걸쳐 본당 대에 배실에서 실시되었다. 광림교회는 매년 신년 초에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직분자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고, 교회의 목회방침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임원전지훈련을 하

고 있다. 앞서 1월 9일(수)부터 진행된 집사 직분자 대상 교육과 마찬가지로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임원들도 같이 본당에 모여 말씀을 듣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16일(수) 첫째 날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담임하는 이영훈 목사가 특별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참 제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우리는 자기 유익을 찾는 무리의 길을 가는지, 아니면 예수님 제자의 길을 가는지, 세상 권력과 물질을 따르는지,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지,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참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목) 둘째 날은 김정석 담임목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라는 올해의 표어를 설

명하면서 “첫째, 교회는 신앙고백의 공동체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둘째, 교회는 이러한 고백과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야 한다. 셋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전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넷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지체이다”라고 말했으며, 특별히 속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8일(금) 셋째날 김정석 담임목사는 신뢰성과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는 교회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갖추었을 때 믿음의 큰 담력과 지체를 얻게 되는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영성훈련의 마지막 순서로 성찬식을 하면서 참석자들은 올 한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내 인생의 말씀

친정어머니의 믿음을 생각하며

창밖으로 뜨거운 태양 빛을 달래는 잿은 바람이 나무와 풀, 꽃들을 살랑이고 있다. 아련히 친정어머니께서 한복으로 곱게 단장하시고 성경 가방과 양산을 들고 오시는 모습이 생각난다.

친가와 외가는 유교 가풍으로 제사가 연중 최고의 행사였다. 어머니는 친정에선 만말이셨고, 시집에선 둘째 며느리셨다. 농사일과 제사음식 만들기에 늘 바쁘게 지내셨다.

그런 중 어머니는 시골교회 전도사님을 통해 집안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셨고, 방언의 은사까지 선물로 받으셨다. 주일이면 교회에 가는 것이 유일한 심이셨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 예배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어머니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었다. 신기하게도 친가와 외가 식구들이 어머니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는데, 누구도 어머니의 믿음 생활을 불평하지 않았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같이 되었사 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시편 71:7-8) 주님의 말씀이 어머니 삶의 주관자가 되어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셨을 거다.

40년이 지난 지금, 나의 모습은 친정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 같다. 나의 믿음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의 출발지인 영적 고향 길갈에서 외롭고 힘들었던 영적 전쟁의 뱀엘로 믿고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렸던 순간을 뛰어넘어, 여리고를 함락하고 요단에서 가나안으로 끝없이 옮겨 가고 있다.

요동치는 풍랑과 깊은 바다 속에 잠겨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계획 하심이 나의 등 뒤에 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고 크신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서 있다.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견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시편 18:2)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 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편 16:11) 아멘.



한지연 권사(여성교회성가대)

生生 생생 속회 (33회) 21교구 남성연합속회

다 같이 기뻐하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남성속회



함께 믿음의 삶 걸어가는 신실한 속원들 한 해를 마감하는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21교구 남성연합속회가 27가정 부부와 아이들 포함하여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 근처 식당에서 열렸다. 박준식 권사(전 교구회장)는 “21교구 ‘송년 부부동반 연합속회’는 1998년에 4가정으로 시작했던 것이 20년째 좋은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매해 좋은 일이 있었던 가정들이 자발적으로 교구의 전 속원을 초대하여 함께 기도하고, 한 해를 돌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자리매김, 새로 편입된 속원을 소개하며 교구식구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자리로 발전해 옴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예배를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식사를 했고, 이 후 가정마다 정성껏 마련한 선물 추첨을 통해 교환하면서 친교와 교제를 나눴다. 또한 한 해 동안 은혜 받고 응답 받았던 일,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으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실하게 속회예배를 드리는 21교구 남성속회에는 이지성 장로, 김경래 장로, 박영준 장로, 최동호 장로, 이재은 장로, 박기연 장로가 속해 있으며, 6명의 장로들이 앞장서 모범을 보이며 속원들을 믿음으로 이끌

고 있다. 봄, 가을, 연말에는 모든 교구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정집이 아닌 경치 좋은 근교에서 자연을 벗 삼아 연합예배를 드린다. ‘다 같이 기뻐하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속회’가 되기 위해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와 공과 말씀을 전한다. 박준식 권사(21 웨슬레 회장)가 각 속회의 6개월 간의 스케줄을 꼼꼼하게 짜서 공지하면 속원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전할 말씀도 묵상하면서 깊은 영성 훈련을 쌓게 된다.

김호근 권사(21-1 바울 회장)는 “속원들이 자기 차례가 되면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고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라고 말했다.

남성연합속회에 참석한 맹경호 권사(21교구장)는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회사 임원으로서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21교구 모든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길 기도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범사에 감사가 생활화 되고 기쁨과 사랑의 줄로 단단히 매인 21교구의 속원들은 2019년에도 새롭게 임명된 봉사 자리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것들 다짐했다.

유병권 기자 ybpower@empas.com

임원전지훈련, 베이비케어 / 특별성경학교 운영

광림사회봉사관과 교육관에서 저녁 7시부터 집회 종료 시까지



미취학 어린이들은 다양한 어린이 영상과 놀이와 간식이 제공되었으며, 취학 어린이들은 뛰어놀 수 있는 피구, 릴레이 등 체육활동과 팀별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부모님들이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도록 2019년 임원전지훈련 기간 동안, 교회학교에서는 데이케어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했다. 미취학 어린이는 광림사회봉사관 3층 영아부실에서, 취학 어린이는 교

육관 4층 초등부실에서 저녁 6시 50분부터 훈련이 끝나는 시간까지 진행되었다. 데이케어 성경학교 프로그램은 임원전지훈련에 참석한 부모들이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데이케어는 집회 40분 전부터 장소를 개방해 일찍 도착하는 봉사자 자녀들을 맞이했다. 미취학 어린이들에게는 다양한 어린이 영상과 놀이, 간식이 제공되었으며, 취학 어린이들은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피구, 릴레이 등 체육활동과 팀별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뒤이어 성경빨리찾기 게임, 스토리텔링,

활동집 등 성경을 보다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다.

아동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체육활동과 놀이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배우는 분위기로 접어들었으며, 모임을 마친 후에는 맛있는 간식도 제공되었다.

“내년부터는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야겠어요. 이번에는 친정에 맡기고 갔는데 참석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니 안심되네요”라고 송채영 집사(8교구)는 말했다.

이정순 기자 lillypink60@hanmail.net

해외선교 앞두고, 따뜻한 후원과 기도에 동참

청년부 2월 1일~22일 4개국(미얀마, 이스라엘, 필리핀, 파라과이)에서 복음 전할 예정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의 아름다운 손과 발
 이번 겨울에도 청년부는 해외단기선교를 진행한다. 2월 1일을 시작으로 22일간 4개국(미얀마, 이스라엘, 필리핀, 파라과이)의 선교팀들이 출정식을 앞두고 있다. 이는 청년 선교국 <백백만 비전>의 일환으로 수개월 동안 해외단기선교를 위해 기도, 예배, 말씀, 섬김으로 훈련받은 아름다운 청년들의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녹아난 여정이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성도들의 따뜻한 후원과 기도로 동참해주시기를 소망한다.

(문의: 최형순 전도사 010-7106-3923)
미얀마 선교: 청년부에서 미얀마에 짓는 세 번째 교회인 시인교회(53번째) 봉헌예배와 현판식 및 아이들을 위한 코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선교사의 사역인 고아원 사역과 미얀마 곳곳의 선교지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담당 전도사를 포함한 10명

의 팀원들이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을 주제로 첫째,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미얀마팀이 되길, 둘째, 시인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진 것에 감사(태풍으로 훼손)하며 이곳에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이 시작되기를, 셋째, 시인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리더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굳건히 서는 것이다. (정예영 팀원)
파라과이 선교: 광림교회 청년부 후원으로 건축된 '사랑과 평화교회'(56번째, 스페인어 Amor paz)의 봉헌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여름성경학교를 섬길 예정이다. 주제는 '사랑'이다. 체감온도 50도가 넘는 무더운 나라. 연필 1자루면 4명이 나눠 쓸 수 있고, 칫솔 1개면 1년을 쓸 수 있다. 비록 신발은 없어도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 남녀노소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가난한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러 간다. 현재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

는 파라과이 지역 6개 교회와 함께 설립된 기독교예술학교 초중고 학생 약 천 명의 아이들과 함께 여름성경학교를 계획하며 예배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한성준 팀장)

이스라엘 선교: 이스라엘은 광림 청년부에서 처음으로 도전하는 선교지다.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이스라엘 땅을 밟고 기도하며 향후 선교의 토대를 마련하고 교회 건축을 목표로 노방전도와 캠퍼스 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히브리대학교와 예루살렘, 나사렛, 갈릴리, 텔아비브, 하이파 5개 지역으로 나누어 대학 내와 지역에서 전도할 계획이다. 특히 예루살렘의 벤 예후다 거리에서는 버스킹(busking 거리찬양사역)도 진행한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기독교 복음의 시작점인 성지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곳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전하길 원한다. 이번 선교의 목적은 '정답'이며 주재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다. (김남효 팀장)

필리핀 선교: 현재까지 6개의 교회를 건축하였고, 청년선교국에서 오랜 기간 단기선교팀을 보내 섬겨온 지역이다. 올해는 까마칠레 지역(아이타스 산족들이 사는 땅, 필리핀 내에서도 소외 받는 지역)의 선교센터 봉헌예배와 현지의 7개 교회와 협력하여 예배와 아이들을 위한 아카데미 클래스를 준비한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세족식을 시행할 예정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임을 전하길 소망한다. 주일학교 클래스별 발표회와 콘서트도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팀원들은 그 지역 언어인 타갈로그어도 배우고 있다. (유희운 팀장)

김옥이 기자 beauty0303@gmail.com

어린 영혼들,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며 헌신하겠습니다!

<2019년 교사임명예배> 1월 20일 주일 저녁예배, 본당 대예배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교사 463명 임명
 지난 1월 20일 저녁 7시 30분, 주일 저녁예배에 교사임명예배가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었다. 이날 예배에서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올해의 교사들 463명이 임명되었다. 광림교회 교회학교에서는 영아, 유아, 유치,

유치3부, 유년, 초등, 소년, 중등, 고등, 어린이영어예배부의 각 교육위원회에서 본당 10명과 광림남교회 1명, 총 11명의 교육위원장을 세웠다. 또한 본당 교육국 교사 361명, 광림남교회 교육국 교사 67명, 광림서교회 교육국 교사 8명, 광림북교회 교육국 교사 6명, 특별부서(씨디스퀘어, 광림어린이축구교실, 웨슬

리문화센터, 남교회 문화센터) 교사 10명을 임명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30년을 근속한 유년2부의 박순옥 집사, 박정민 집사와 고등2부의 박진서 권사가 30년 근속패를 받았다.

이어 25년 근속 1명, 20년 근속 2명, 15년 근속 10명, 10년 근속 4명, 5년 근속 32명의 교사에게 각각 근속패가 수여되었고,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추천된 교사 29명이 모범교사상을 수상했다.

임명된 교사들은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열심히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바른 예배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해진 시간을 엄수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심방하고, 광림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서약했다.

변영혜 기자 yhbyun1010@hanmail.net

신앙 간증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만난 하나님

광림교회에는 4년 전 처음 오게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선뜻 청년 공동체에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6개월 정도를 고민하다가 청년부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속회를 통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깊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때론 어렵고 낯설었지만, 하나님을 깊게 알기 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청년부에 다니면서 감사했던 것은 많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기쁜 일입니다. 힘든 일인데 자신의 일처럼 기도해주며 함께 예배드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미 큰 것을 알기에 다른 이에게 전달되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부 안내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작 전, 주보를 나눠주며 많은 청년들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며 주보를 줄 때, 주뿔뿔 부끄러웠던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을 볼 때는 청년공동체에 함께하며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가족 속회를 통해 매주 새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새가족 교구 개편을 하면서 안내팀장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저처럼 마음엔 있지만 오랫동안 망설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그런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도움이 역할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모만 알고 마음으로는 알지 못했던 예전의 나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어땠을까?' 현재 삶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도 너무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한나 성도(청년부)

‘기력’이 아니라 ‘기억’으로 산다

- 목회현장 -



추연복 목사(8선교구)

얼마 전 라디오에서 “나이를 먹으니까 몸도 마음도 예전같지 않고,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정말로 많은 힘이 듭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기력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인생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기력이 아니라 기억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지혜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삶의 과도한 소외와 지나친 욕심 대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8선교구를 섬기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9년 전 광림 제단에 부임해서 처음 담당할 선교구에 작년 말 다시 부임하였습니다.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고, 연초 임원전지훈련과 대심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대심방 때 놀랍고 감사한 일을 체험했습니다. 마지막 가정의 대심방 예배를 마친 후 부인 권사님께서 준비하신 다과를 먹으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전에 우리 집 대심방 마치고, 00 식당에서 식사하신 거 기억하세요? 그 때 목사님이 날 음식을 잘 못드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께서 9년 전 함께 식사했던 식당까지 기억하시지. 그리고 부목사가 날 음식을 잘 먹지 못했던 것까지 기억하시지’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권사님 가정과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 제목을 얼마나 기억하나.’ 그러면서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역자를 사랑하시고, 기억해 주시는구나. 이런 사랑을 받으니까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심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담임목사님께서 교역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목회는 사랑이다. 목회는 관심이야.” 그 권사님은 처음 부임해서 반가움이 컸던 저를 관심 갖고 기억해주셨습니다. 사랑이 관심으로 이어졌고, 9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기억의 실타래를 풀면서 대화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짧은 기억의 나눔이 부족한 저에게 큰 감동이고, 영혼의 울림이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부족함 많던 신입교사가 이젠 베테랑이 되어

- 광림남교회 -



어려서부터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직분 또한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무렵, 교사임명예배 때 교사 20년 근속을 하신 어느 선생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었는데, 벌써 제가 교사 20년 근속상을 받게 되니 정말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교사를 시작했던 그 때의 설렘, 그리고 정식으로 분반을 맡았을 때의 그 떨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5분 정도 되는 분반을 위해서 몇 배가 되는 시간을 준비하면서도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던 신입교사였습니다. 이제는

경험 많은 베테랑 교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새 학기가 되고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게 될 때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교사를 하는 동안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기도모임을 만들고 함께 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름수련회가 끝나고 몇몇 아이들과 예배 1시간 전에 모여서 함께했던 기도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들과 저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화려한 음악은 커녕 악기 하나 없이 그야말로 말씀만 붙잡고 기도만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개구쟁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기쁨으로 모였던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교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함께 교사로 섬기시는 동료 선생님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는데, 특히 그 아이들이 자라 신입교사로 들어오고 신입교사들의 순수함과 열심을 볼 때면 다시 한 번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올해도 처음 시작하는 신입 선생님들과 선배들이 한 마음으로 초등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입 선생님들도 10년, 20년 그 이상 근속하는 선생님들로 성장하고, 저 또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익희 교사(광림남교회)

말씀으로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공동체

- 광림서교회 -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어린이들

2017년 8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광림서교회는 영적인 터에 말씀과 기도, 눈물의 씨를 뿌리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9년은 은혜로 퇴운 믿음의 씨에 헌신과 사랑의 물을 주며 다음세대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아유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어린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매주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광림서교회가 세워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2명의 아이들이 예배드렸지만, 지금은 1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활기차게 예배드리고 있습니

다. 아이들의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와 기도를 낯설게 여기던 아이들이 지금은 예배 시작 전에 알아서 제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전도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처 초등학생들에게 가고 싶은 교회로 알려져 가고 있는 아동부와 초등부는 매주 예배 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이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을 힘차게 격려하는 <학교 앞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에는 처음으로 교회학

교 <성탄절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2달 동안 정성스럽게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아이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은혜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씨가 잘 자라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킨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부 채기영 교사는 “처음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2명의 중학생과 청소년 온타임으로 큐티하며 예배를 대신했지만, 실망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더니 이제는 12명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광림교회는 세계의 교회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이 녹아있습니다. 지금 광림서교회가 그 귀한 사랑과 헌신을 심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광림서교회가 청라와 인천을 넘어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목사(광림서교회)

<2019 임원전지훈련> 하나님께 소명과 부름을 확인한 시간

본당과 지교회 신천집사와 권사, 성숙한 리더 되기를 다짐한 순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올해 새로 권사 직분을 받아 참석하게 된 <2019 임원전지훈련>은 하나님께 소명과 부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임원전지훈련 첫째 날, 이영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참 제자의 길'이란 주제에서 "당신은 무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간절히 찾고 다른 때는 내 길로 가면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 무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며 묵묵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으니까요.

둘째, 셋째 날, 김정석 담임목사님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듣게 된 참된 교회의 모습, 교회의 기능, 속회의 중요성, 임원의 역할 등은 믿음을 굳건히 하고 뜨거운 사명감을 심어준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섬김과 나눔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교회, 광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돕고 사랑하는 교회 등을 역설하실 때마다 저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어떻게 제가 사명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충성되게 일해야 하는지 기도할 때 어찌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성숙한 리더가 되겠다고 매번 다짐하지만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모습 속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전

폭적인 도우심을 바라면서 나라와 교회, 내 이웃 그리고 광림의 성도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광림교회 표어인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롬 15:1-3)를 마음에 새기고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소명의 자리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소현수 신천권사 (8교구)

이번 임원전지훈련은 제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예전에 주일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제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임원으로 다시 일어나 12년 전 광림남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신천임원이 되어 본당 임원전

지훈련 기간 동안 말씀을 듣자마자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첫날 강사로 오신 전용재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신앙생활 수준은 발바닥도 안 되는구나, 정말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교회 봉사나 사역은 내가 아닌 다른 분들이 하면 되겠지. 나 한 명쯤 안 해도 뭐 문제가 되겠어' 했는데, 그 생각 자체가 무너만 교회의 성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 것이지 광림남교회 임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는 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주일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제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김정석 담임목사님께서 교회의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 집사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이루어나가는 일꾼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다짐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발자취를 따라 이번 임원전지훈련이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시는 그 발자취를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또 귀한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정석 담임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집사의 모습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영민 신천집사 (52교구)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광림서교회> 부흥의 밑거름 될 수 있기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딤후 3:8~9)

임원전지훈련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 집사(deacon)는 헬라어 '디아'와 '코니스'의 합성어인 '디아코니스'(먼지 속에서 일함)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한다. 교회의 봉사자로서 봉사와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이다. 그러나 나는 사실 그동안 뚜렷한 사명감이 나 절박함 없이 교회를 다녔다. 집사란 직분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주어지는 것인 줄 알

았다. 그런 내 자신이 이번 임원전지훈련 교육을 통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기는 것에 열심을 다하며 말씀과 기도, 예배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집사람과 나는 요즘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에 놀라고 감사할 뿐이다. 2년 전 이곳 인천 계양으로 오게 될 때에 걱정을 많이 했다. 신사동 본당까지 어떻게 교회를 다니나? 전철을 타고 가나? 차를 가져가야 하나? 모친께서는 꼭 본당으로 다녀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내심 걱정이었다. 그리고 있던 차에 청라 국제도시에 광림서교회가 곧 봉헌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계양에서 차로 15분 거리가기에 기쁜 마음으로 모친을 모시고 갔다.

공원 옆에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는 광림서교회의 모습에 우리 가족 모두 좋아했다. 담임목사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주심에 감사했다.

광림서교회가 이곳 인천지역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집사로서 헌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기도와 맘이 비록 겨자씨처럼 작다 하더라도 성경이 역사하는 광림서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를 위해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는 날까지 올해는 속회를 더욱 활성화 하고 견고히 하는 것이 목표다. 광림서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이영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봉사

할 것을 다짐한다. 주일 날 광림서교회 안팎으로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그리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딤후 3:8-9)



이 홍 집사 (광림서교회)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2019년 각 위원회 위원장들>의 각오과 다짐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종과 성도들을 섬기고 몸 된 교회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위원장들

지난 1월 13일 청지기주일을 맞아 광림교회 각 기관과 부서 위원장이 새롭게 임명되었다. 2019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할 위원장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종과 성도들을 섬기고 몸 된 교회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별히 올해 각 위원회 중 새롭게 임명된 9명 위원장들의 각오와 다짐을 들어 보았다.



중등교육위원회 박영노 장로
광림교회를 섬긴 40년 동안 교회학교 봉사는 처음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 중등교육 위원장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어린 심령들을 잘 돌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안경섭 장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광림교회는 지금껏 많은 성전들과 선교관, 교육관 등을 봉헌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에 끼친 선한 영향력 또한 참으로 큼니다. 앞으로도 담임목사님의 목회비전에 맞춰 성전건축을 통한 선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대한민국의 복음화에 큰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참으로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성실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음악위원회 현명호 장로
2019년에도 광림교회의 모든 성가대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데 성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하고, 부족한 파트가 없도록 영적으로나 음악적, 양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대원들이 성가대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마음으로 흠 없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드온선교위원회 송병제 장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한이 없는 사랑과 겸손함으로 섬기려 이 땅에 오심을 본받아 기드온선교회원들과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꽃꽂이위원회 이순호 권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의 제단에 꽃꽂이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주일예배를 위해 우선순위로 달려 나오는 꽃꽂이선교회 회원들의 귀한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제단을 꽃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향기로 채우셔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 문을 열어 능력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기도드립니다. 겸손히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국제광림비전랜드 장한경 장로
올해 교회 표어인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에 맞춰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개관 12주년을 맞는 국제광림비전랜드를 방문하는 세계 모든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육체의 강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친절’을 모토로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사랑부위원회 우형진 권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장애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예배와 정성껏 준비한 분반공부를 통해 사랑부 형제자매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음악, 미술, 체육 등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림서교회 남선교회 박영수 권사
할렐루야! 섬김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광림 교우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광림서교회가 2019년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남선교회 회원님들과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와 헌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여 기적과 간증으로 주를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매사에 겸손과 온유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광림복교회 여성교회 이영애 권사
샬롬!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욥 8:8) 광림복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감독님과 담임목사님,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으로 인사드립니다. 광림복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신 줄 믿고, 복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물심양면으로 헌신 봉사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